

국회의원은 민주당 이해찬



시장은 선진당 유한식



교육감은 보수 성향 신정균



주목, 19대 총선 이 당선인

우상호, 박근혜 최측근 이성헌에 설욕

이번이 네 번째 매치였다. 서울 서대문갑 민주당 우상호(49·사진) 전략홍보본부장과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 둘은 똑같이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그런 둘은 16대 총선부터 이곳에서 맞붙어 10여 년을 지역 라이벌로 지냈다. 네 번째 대결에서 우 본부장이 이 의원을 1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16·18대 짝수 총선에선 이 의원이, 17·19대 홀수에선 우 본부장이 이기면서 2승2패로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우 본부장은 언론인 출신이 아니면서도 지금까지 당 대변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경선캠프 대변인 등 대변인만 7번을 지낸 기록을 갖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때 전대협 부의장을 맡았던 그는 당내 '486세대' 정치인을 대표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19대 국회에선 민생 대안을 마련하는 '색깔 있는 진보'로, 우리 세대만의 정치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황금분할 세종시, 잘 굴러갈까

3인3색 당선인 ... 기대와 우려

'한국판 워싱턴DC'로 불리는 세종시 선거 결과 국회의원에는 민주당 이해찬(59) 후보, 시장에는 자유선진당 유한식(63) 후보, 교육감에는 신정균(62)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각기 다른 성향의 3색(色) 인물이 세종시를 이끌어 갈 집행부를 형성한 것이다. 7월 1일 출범하는 인구 9만6000명의 세종시 살림을 꾸리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독특한 위상 때문에 선거 초반부터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DC에 버금가는 행정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투표율(59.2%)도 전국 광역단체 중 1위이고, 전국 평균 54.3%보다 높았다.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 기관이 올해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내려간다. 임기는 국회의원은 4년이지만 시장과 교육감은 7월부터 2014년 지방선거 때까지 2년이다.

선거 결과에 대해 충청권에서는 "세종 시민들이 특정 정치세력에 표를 몰아주지

않고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인물'에 비중을 둔 반면 시장과 교육감은 '토박이'를 선택한 것이다. 이 국회의원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이에 비해 유 시장 당선인은 연기군에서 태어나 평생을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살아왔다. 연기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연

정파 치우침 없이 고루 뽑혔지만 진보 의원과 보수 시장·교육감 시 건설, 고교무상교육 조율 과제로

기군수를 역임했다. 신 교육감 당선인은 교직생활 42년 가운데 35년을 연기군에서 근무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그는 충남교육청 장학사와 연기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이들 집행부 성향 때문에 정책 추진에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 당선인은 진보 성향이지만 시장과 교육감 당선인은 보수 성향이다. 당장

교육정책 공약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 당선인은 "하반기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관내 32개 초·중·고교 혁신 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학교 형태다. 진보 성향인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이 도입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 시절(1998년)에도 학생들에게 '1등 주의'보다 자율과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신 교육감 당선인은 ▶과학영재고 설립 ▶지역별 특성화 중심학교 ▶글로벌 인재 육성 장학 프로그램 운영 등 수월성 교육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회의원과 시장의 소속 정당이 다른 점도 세종시 건설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재대 정연정(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정당마다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에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시장과 국회의원이 같은 정당일 때보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하모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김병현 기자 kbhkk@joongang.co.kr

MB계 김용태, 서울 휩쓴 심판론 뚫고 재선

서울 양천을은 13대부터 17대 총선까지 야당이 석권해온 지역이다. 이명박계로 분류돼온 새누리당 김용태(44·사진) 의원은 이곳에서 수도권을 강타한 정권 심판론 바람 속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12일 "젊은 사람이 약자같이 노력했는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 당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선거전은 어려웠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를 지낸 이용선

(54) 후보와 대결해야 했다. 김 의원은 유세차를 타지 않았다. 혼자 자전거를 타거나 걸으며 주민들을 만났다. 그런 유세에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개표 결과 49.4%를 얻어 47.6%의 이 후보를 1780표 차로 눌렀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선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중앙일보 기획위원,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을 지낸 그는 18대 국회에선 당국 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김도읍, 문성근 꺾고 낙동강 저지선 방어

'낙동강 전선'의 마지막 저지선을 지킨 사람. 부산 북-강서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김도읍(47·사진) 당선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상대는 문재인 상임고문과 함께 '투문'의 콤비를 이룬 민주통합당 문성근(58) 후보였다.

김 당선인에게선 시작부터 어려운 싸움이였다. 영화배우 출신에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 사회자로 유명한 문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왔다.

당내에선 "이러다 진짜 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문 후보의 '바람'에 맞서 '지역 일꾼론'을 내세웠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의 동아대 법대를 나왔고, 부산에서 검찰 생활을 했다는 토박이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선거 기간 다섯 번이나 부산을 찾아 지원사격을 해준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의 도움도 컸다고 한다. 결국 선거 막판 뒤집기로 53.05%(김도읍) 대 45.15%(문성근)라는 비교적 큰 차이로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 염색약에 대한 불편한 진실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면, 50년 이상 염색약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암모니아, PPD 성분이 들어있는 있는 염색약을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NO PPD**

NO 암모니아

NO 합성 향료들

매직에코 프리미엄에는 이런 성분들이 없습니다

-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PPD
- 독한 냄새를 나타내는 암모니아
-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합성 향료들

이제 염색약도 건강을 생각하고 사용할 때입니다!



신용의 상징 - 비둘기표 유한양행 www.yuhan.co.kr

냄새없는 친환경 에코 염모제

매직에코 프리미엄 소비자 체험단 모집

지금 염색을 하고 계신가요? 매직에코 프리미엄의 무료 샘플을 신청하셔서 냄새없는 친환경 에코 염색을 경험해보세요.



1. 자격: 염색하시는 분 누구나
2. 기간: 4월 ~ 5월(2개월간 / 5월 31일 소인까지 유효)
3. 내용: 아래의 주소로 우편엽서를 통해 신청하신 분들 중 총 6,000분을 추첨하여 매직에코 프리미엄(희망하시는 색상 1개)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4. 보내실 곳: (156-754) 서울 동작구 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 16층 매직에코 프리미엄 담당자 앞
5. 응모 내용: 성함, 출생년도, 성별,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사용 희망색상(1개 호수만 표시) (정확한 택배 수령을 위하여 주소와 휴대폰 번호, 희망호수는 반드시 기재 요망)
6. 당첨 인원: 매일 3,000명 / 중복 당첨자 제외
7. 당첨 발표: 익월 15일까지 유한양행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발송